

전주시, 시민들과 함께 살림살이 꾸린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시 홈페이지에 공고... 주민 아이디어사업 발굴 주력

전주시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한 열린 예산제 운영을 위해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예산 △투명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동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 △활발한 참여와 토론의 장 마련 등 네 가지 기본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시민들의 열정이 넘칠 수 있는 운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올해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그간 단순 시민편의사업 위

주의 사업발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하고 개선 있는 주민 아이디어 사업발굴을 통해 적은 예산투입으로 시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 편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동 협의회를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밝고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들 위주로 동별 10명씩 총 330여명의 동 협의회를 구성한 후 동별로 매분기 정기적인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또한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시민원탁회의와 다들미당 등에서 제시되거나 2016 공모제안을 통해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

해 주민참여 사업 제안공모기간 이외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주민참여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정책입안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정책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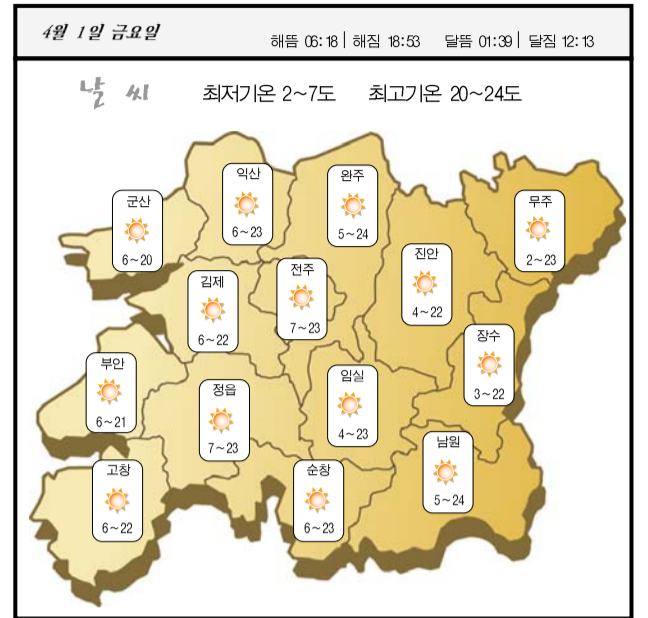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주민제안 아이디어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4건의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이 접수됐으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 중 총 119건 28억원의 사업이 2016년 본 예산에 편성됐다.

시는 또 내실 있는 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 지역 위원을 공개모집해 총 33명 중 25명을 새로 위촉했고, 재정분야 등 관련분야 직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의 경우에도 8명 중 6명을 분과위원회로부터 신규 추천받아 당연직을 포함한 총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주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제안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변형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를 기본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발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범식. 지난달 31일 전주 서부신사거리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3층에서 열린 (재)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신후 진흥원장 및 참석자들이 출범식 세레모니를 갖고 있다.

추모곡 '리멤버' - 추모시 '슬픈 나비'

도교육청, 세월호 희생자 추모곡·추모시 6편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을 통해 총 6편의 추모곡과 추모시를 선정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분야별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선정했다.

추모곡 부문에서는 김푸른 이리북초등학교 교사가 작곡한 'Remember(리멤버)'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추모시 부문에서는 허윤종 장수수남초등학교 교감의 '슬픈 나

비'가 최우수작으로, 박수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주무관의 '토란'과 전주교육대학교 3학년 박상욱씨의 '너희에게로 보낸다'가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 '슬픈 나비'는 사회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김푸른 교사는 "세월호 학생들을 위해 은유해 노랫말을 만들었다"며 "봄이 돌아오면 꽃들이 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향기를 내듯 세월호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나겠지만 그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발표

예방위원회 운영·예방교육·보호기관 인력 추가 배치·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

전북도는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추진체

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개선 ▲신고활성화 및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현장컨트론타워 기능 강화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달 안으로 '전

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며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24개 직군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올해 상반기

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현재 3개의 아동보호기관에서 운용하는 인력 39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0명 정도 추가 배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학대피해아동들의 일시 쉼터를 확장하고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늘려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생사실에 대해서 형사고발 및 시설의 운영정지·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경쟁률 3.64대1

도, 750명 모집 2732명 지원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경쟁률이 3.64대1을 기록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750명 모집에 2732명이 지원해 3.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부적 경쟁률을 보면 초등학생은 412명 모집에 1940명(4.71대1)이 불렀고, 중학생은 315명 모집에 769명(2.44대1)이 신청했다.

대학생은 23명 모집에 23명이 신청해 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한 다문화가정 별도 선발(7명)에도 32명이 신청하는 등 해외연수에 관심을 보였다.

도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선발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6주간의 해외연수를 하게 되며 대학생은 48주 이내에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정영수 기자

2016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2016. 4. 7~10 전주실내체육관

2016. 4. 7 PM 4:30 / 2016. 4. 7~9 PM 5:00

LoL Champions Korea spring 2016

2016. 4. 10 PM 1:00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LoL Champions Korea spring 2016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ROX vs JIN AIR	Afreeca vs CJ	KT vs Kongdoo	한국팀 VS 중국팀
Kongdoo vs SAMSUNG	SKT vs SBENU	JIN AIR vs Longzhu	

예매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전국 최대의 e스포츠 열기를 함께 느껴보세요!

주최 | 전라북도 | 전주시

주관 | KESPA | BILZARD | CJ E&M | OGN